

# 낙농산업은 미래의 농촌경제를 살리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



**이 상 섭**  
본회 강원도지회장

### 1. 서언

21세기를 눈앞에 두고 강대국들은 자국의 이익을 위하여 힘의 논리에 의한 새로운 무역체제(WTO)를 구축하여 세계의 경제 질서를 자유무역주의 틀 속에서 이루어지도록 제도화하여 이제는 개발 도상국이나 선진국 진입을 눈앞에 둔 우리나라와 같은 나라들은 더 이상 자국의 산업 보호를 위한 각종 지원과 제도를 근원적으로 제거할 것을 강요받기에 이르렀다.

그 동안 농촌 경제를 지탱하여 왔고 국가 산업구조의 정상화의 틀을 유지하여 온 우리의 낙농육우 산업도 국제화 시대의 거센 변화의 물결에 대응하기 위하여 우리의 문제점을 돌출시켜 그 치유 방법을 하루빨리 강구해야 하겠다.

물론 산업의 경쟁력 약화로 수출을 주도하고 국제수지의 개선을 담당했던 반도체, 철강, 자동차 등의 수출 부진으로 그 여파가 산업 전반에 영향을 주고 있기에 수출 주력 산업에 대한 대책은 각종 경제연구소에서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묵묵히 농촌 경제를 이끌어 왔고 미래의 전략 무기로 둔갑하게 될 식량자원을 생산하는 낙농산업이 어려움을 처하게 된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데 관계 부처 및 그 산하연구소에서는 명확한 해답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곧 국가가 낙농산업에 대한 무관심을 나타낸 증거라 아니할 수 없다.

### 2. 낙농가의 당면한 문제

첫째, 소값 하락이다.

물론 수요, 공급의 불균형에서 나오는 문제이다. 외

국산 쇠고기가 수입되는 것은 현실로 받아 들여야 한다. 그러나 외국산 쇠고기가 한우로 둔갑하여 시중에 유통되는 것은 유통 구조에 커다란 구멍이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유통 구조를 철저히 구조화하고 전국의 낙농육우 수를 전산화하여 일일히 이동 상황을 체크하여 육우의 수를 적당량 조절해야 하고 팜우병과 같은 질병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각별히 소의 건강 진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쇠고기의 수요를 감퇴시키는 요인을 사전에 봉쇄해야 한다.

둘째, 우유체화 문제이다.

국민의 식생활 패턴이 서구 지향적이고 현대인의 숨가쁜 일과를 생각하면 우유만한 식품이 눈에 띄지 않는다. 그런데 우유 소비의 급감 현상은 우리 낙농산업에서 그 잘못이 있다. 먼저 우유 소비의 확대를 위한 과학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유가공업체는 공동으로 우유의 우수성을 과학적으로 증명하여 소비자의 신뢰를 얻어내야 한다. 또 깨끗한 우유를 정성을 다해 생산해내겠다는 낙농가의 각오도 뒤따라야 한다. 그리고 유가공 업체는 경제적 논리로 수입 원료에 의한 유제품 생산을 지속할 경우 국내 낙농가는 설곳이 없다는 현실을 무시할 경우 결국 비싼 대가를 치를 것이다. 유가공업체와 낙농가는 같은 배를 탄 공동운명체임을 잊어서는 안된다.

셋째, 사료값 인상이다.

사료업체에서는 이윤 조정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 하지만 양축가의 시각으로 볼때 해도 해도 너무 한다는 느낌만 들 뿐이다. 인상한지 며칠이 지났다고 또 인상한다니 기가 막힐 뿐이다. 달려 환율의 인상이 그

## 낙농육우산업 이대로가 좋은가?

요인이라면 환율인하시 값을 인하하였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사료값 인상 요인을 세정적인 지원 문제에서 그 해결책을 찾는 길이 양쪽 모두가 사는 길이라 생각된다.

넷째, 원유의 세포수 강화 문제이다.

낙농의 경쟁력을 살리는 방안의 하나이겠으나 양축농가의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 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야 한다. 이 모든 행정적 조치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침해된 우유 소비가 촉진될 계기가 되도록 힘써야 한다.

다섯째, 잔류 물질 검사 문제이다.

이 문제는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국민의 건강에 해를 끼치지 않는 범위에서 이를 수치화 하여야 한다. 이 제도를 잘 활용할 경우 소비자의 신뢰를 회복하고 쇠고기의 소비 촉진책으로 이어지면 앞에서 제시한 문제들도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협회 관계자들은 적극적으로 검토하여야 하고 뒤로 후퇴해서는 안된다.

여섯째, 절박도축우 문제이다.

급박스런 사고로 인하여 불가피 하게 절박도축될 수 밖에 없는 소와 질병으로 인하여 절박도축되는 경우 두가지 유형이 있다. 후자의 경우는 식용으로 불가

능 한 데 일부 파렴치한 소상인이 이를 수의사와 결탁하여 부정으로 유통 시키는 데 문제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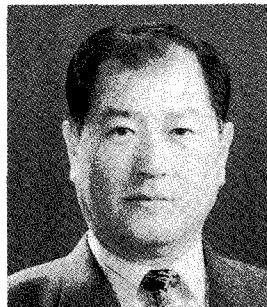
이 경우 철저한 수사를 통해 일벌백계로 다스려 다시는 이런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소비자는 소에 대한 세부 문제는 잘 모르기 때문에 언론에 보도가 될 경우 한우에 대한 신뢰감으로 이어지므로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모든 쇠고기가 절박도축우처럼 비쳐져서는 안되도록 마스크에서도 정확한 검증을 거친 보도를 해야한다.

### 3. 결론

지금 우리 낙농산업은 매우 어려움에 처해 있다. 중소 기업체가 자구책의 하나로 굳게 뭉쳐 대대적인 판촉행사를 개최 하는 것을 보고 우리 낙농 육우산업도 한번 고려해 봄직하다고 느껴진다. 국가는 낙농산업을 진부한 산업으로 치부하기 보다는 미래의 농촌 경제를 살리고 농촌 인구의 상주화를 위한다는 시각으로 보아야 한다.

우리 낙농의 어려움을 단지 경제적인리로만 해결하려는 태도 보다는 국제 경제 동향을 철저히 분석하여 미래를 정확히 예측하고, 그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하는 데 우리 모두 함께 그 지혜를 모아야 한다. ㉞

## 소산업 지켜 축산물을 자급해야...



조 성 민  
본회 충북도지회장

지난해 여름 배합사료 값이 두번이나 인상되어 우리 낙농가도 원유대금을 더 받아야 된다고 농정당국과 물가행정 당국에 호소하여 미약하나마 힘들게 인상을 얻어 내자마자 우유품질 논쟁으로 소비자에게

이전투구의 모습을 보였다. 그 결과는 분유개고를 쌓아 올리고 소비처를 찾지못해 전전공공하는 사태가 되고 말았다. 하지만 우리 낙농가는 해냈다. 다른 나라라는 십년이나 걸려서 이룩했다는 세균수 줄이기를